교황 레오 14세께서 디지털 선교사들과 인플루언서들에게 보내는 말씀.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사드리며 이 시간을 시작하였습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적대와 전쟁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인사를 다시금 증거해야 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19) 그분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행동 속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를 선포하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는 하느님의 용서를 가져다주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며, 사랑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가 지금 희년을 맞아 로마에 온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디지털 공간, 소셜미디어 안에서 증진시키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평화는 찾고, 선포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는 곳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잃고 영적 내면을 등진 이들의 공허한 마음 속에서도. 오늘날,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된 평화를 전할 선교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전하며(사도 1,3-8 참조), 누군가 기다리고, 찾고, 목말라하는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그 끝자락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2. 이 사명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마주치는 모든 형제자매 안에서 ‘고난 받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깊이 스며든 새로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인간적인 것으로 유지해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 특히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뿐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성과 능력으로 비롯된 어떤 것도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 곧 여러분의 사명은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를 함께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문화의 변화 앞에서 교회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희망으로 시대를 비추려 했으며, 선과 악을 식별하고, 선한 것과 정화되어야 할 것을 분별하며,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술이 관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도입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증거의 진정성, 경청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능력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노력하여, 사랑의 언어로 시대의 목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상처 입은 이들, 주님을 알아야 할 이들, 다시 일어설 길을 찾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정은 우리 자신의 가난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허세를 내려놓고,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존재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3. 이제 세 번째 초대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그물을 손질하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망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마태 4,21-22 참조).

오늘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그물, 곧 진정한 우정과 무상의 사랑으로 엮인 관계의 그물, 부서진 것을 회복하고 외로움에서 치유받는 그물, 팔로워 수에 집착하지 않고 매 만남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물, 가장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지 않는 그물,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물,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되찾게 해주는 그물, 진리의 그물을 짜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행의 모든 이야기가 하느님의 그물망, 즉 ‘그물들의 그물’ 속에 하나의 매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치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양극화,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의 논리를 타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허위와 가벼움, 거짓 뉴스의 논리를 이겨내고 진리의 빛과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요한 8,31-32 참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증언을 주님께 맡기며 축복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껏 이루어온 모든 선한 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품은 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나눔, 그리고 디지털 세계의 길 위에서 이어가고 있는 복음의 여정에 대해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